



▲ 키즈 비보잉 크루
<바모스(VAMOS)>

CONTENTS

Vol.76 2023년 5월호

발행일

2023년 5월 1일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Tel. 055-278-1784

편집인

홍보담당관 이종섭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전영부·주무관 이유민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주)큰그림

경남교육, 미래를 만나다

04 특집 기획

이달의 경남교육 주요 정책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

08 요즘 아이, 별별 꿈

키즈 비보잉 크루

바모스(VAMOS)

12 경남교육가족을 만나다

마산YMCA 좋은아빠모임

16 학교 변신은 무죄

창원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상남’의 하루

20 열정을 만나는 시간

평균 연령 78세

거창아림고등학교 1학년 4반

경남교육, 재미를 만나다

24 방구석 영화관

온 가족이 함께 보면 더 좋은 영화

26 경남교육캘린더



28 힐링필링 경남교육명소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함안도서관과 무진정,

강나루 생태공원

32 즐겁지 아니한家

권영웅·이민정 부부와 7남매

36 우리말 돋보기

38 학교폭력 예방 웹툰

경남교육, 정보를 만나다

40 진로진학 나침판

42 숫자로 보는 경남교육

44 경남교육뉴스

46 의정소식

48 도정소식

50 독자기고

51 독자퀴즈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자주 떠올려 보게 되는 5월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더욱 어렵게 느껴지죠.

만약 5월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과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 나를 아껴주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 가족.
그들에게 용기를 내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5월에 가장 아름다운 햇빛처럼
반짝이며 웃는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특집 기획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
방정환 선생님이 결성한 소년운동협회는 ‘소년운동의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어린이해방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린이해방선언’에 담긴 어린이들의 바램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지금의 어린이들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어린이날 101주년을 기념하여 그 가치를 되새기고 널리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어린이였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보듬어주는 마음으로 우리 곁의 어린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어른이 되어주세요.



전국 최초의 소년운동 진주소년운동

어린이날의 모태가 되는 소년운동이 바로 진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어린이 운
동의 창시자인 소파 방정환 선생도 1923년 3월 <어린이> 창간호에서 진주소년회를 본격적인 소
년운동의 시작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글방이나 강습소나 주일학교가 아니라 사회적 회합의 성질을 띤 소년회가
우리 조선에 생기기는 경남 진주에서 조직된 진주소년회가 맨 처음이었습니다.”

- <어린이> 창간호에서 -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이후 당시 우리나라에는 여러 민족운동이 생겨났습니다. 소년운동 역시 농
민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과 같이 민족운동 중 하나였습니다. 소년운동을 전국적으로 주도한 것
은 천도교소년회이지만, 이보다 8개월 앞선 1920년 8월, 진주에서 먼저 진주소년회가 조직되었
습니다. 진주소년회를 통한 소년운동의 첫걸음이 어린 나이에도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나라 사랑 정신과 함께 나이 어린 아이들의 인권에도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로 어린이해방선언문

방정환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억압받는 어린 사람들을 위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고 ‘색
동회’를 조직하여 1922년 5월 1일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1923년에는 ‘조선
소년운동협회’를 만들어 5월 1일 제1회 어린이날에 ‘어린이해방선언’을 하면서 그 내용을 선전지에
담아 전국에 배포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어린이를 어른과 똑같이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존중하여
모든 윤리적,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어린이를 해방시키자는 내용으로 전세계에서 최초로 가장 획기
적으로 이루어진 선언입니다. 아래는 어린이해방선언문에서 소년 운동의 기초 조건을 다룬 장입니
다. 꼭 전문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라.
2.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3.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 어린이해방선언문 전문 3장 <기초조건> -



어린이 창간호(1923.3.20.)
출처: 한국방정환재단



소파 방정환(1899~1931)
출처: 한국방정환재단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어린이날 101주년 기념 지역별 프로그램

지역	행사	내용	일시	장소	참여방법
창원	동심의 세계 꿈꾸는 놀이터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 기념 특별전 미디어월 인터랙티브 놀이 체험	5.2.(화)~9.3.(일)	창원시립 마산박물관	현장참여
	가족과 함께하는 수학 나들이	특별체험부스	5.5.(금)	경남수학문화관	사전예약
		수학놀이터, 보드게임존, 보물 찾기			현장참여
	다가치 토요어울림	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진로 및 문화체험	5.13.(토)	경남 로봇랜드	사전예약
진주	뽕!뽕! 찾아가는 안전체험 한마당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승강기 안전체험 운영	5.5.(금)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현장참여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축제	실내체험 - 바람공, 동화, 아트, 물 등			사전예약
		실외체험 - 에어바운스, 에어글라이더 등			현장참여
	아이좋아! 과학아, 놀자!	3D 영상관 체험	5.5.(금)	과학교육원	현장접수
		천체투영관 체험			사전예약
		과학관 체험, 곤충 세밀화 그리기			현장참여
	예술로 해봄	해봄악기도서관 자유관람 개방데이	5.1.(월)	예술교육원해봄 악기도서관	현장참여
		여행작가 박성호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5.16.(화)		사전예약
		클라리넷 앙상블	5.12.(금)		
		가족과 함께하는 5월의 음악여행 브라스콰이어SOOM	5.19.(금)		
	어린이날 수학데이	가족체험수학-SW프로그램, 미니체험부스	5.5.(금)	진주수학체험센터	
통영	통영 행복마을학교 어린이날 행사	나전칠기 체험, 통영오광대 탈 만들기, 잔디인형·다육화분 만들기 등	5.5.(금)	통영 내죽도공원	현장참여
사천	잘놀아야 잘 크다	공연마당 - 풍물, 방송댄스, 태권도 등	5.5.(금)	사천시청 노을광장	현장참여
		체험마당 - 청소년존, 어울림마당존 등			
		체험마당 - 드론체험, 비행체 조립 등			
	다가치 토요 어울림	전통 발효식품 만들기	5.13.(토)	사천콩지은교육농장	사전예약
김해	행복한 동행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생태체험 - 실내체험장, 마중물놀이, 흙산놀이, 꽃바구니 만들기 등	5.5.(금)	김해체험분원 실내외체험장	사전예약
	2023. 김해가야문화축제	이색수로왕 행차 퍼레이드		김해봉황동유적	현장참여
		가야빌리지	5.5.(금)~5.7.(일)	대성동고분박물관	현장참여
		가야보물찾기 - 가야유적탐방	5.7.(일)	봉황동유적지	현장참여
	봉하로 소풍가자	모래놀이터, 수서곤충 스탬프 투어 등	5.5.(금)~5.7.(일)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현장참여
	어린이날 수학데이	가족체험수학, 맵스투어	5.5.(금)	김해수학체험센터	사전예약
	어린이날 맞이 행사	타투스티커 체험	5.5.(금)~5.8.(월)	국립김해박물관	현장참여
		박물관 캐릭터 활동			

※ 학교에서도 다양한 어린이날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면의 제한으로 일부만 소개되었습니다.

※ 자세한 행사 및 예약 관련 내용은 각 기관의 누리집을 확인해 주세요.

지역	행사	내용	일시	장소	참여방법
밀양	모여라! 다같이놀자!	점자활용 장애체험 그림책 및 빅북전시, 도전! 민속놀이, 포토존 등	5.5.(금)	밀양공설운동장	현장참여
	신나는 점핑! 팡팡팡팡	야외체험장(점핑!팡팡팡팡), 너나들이 체험공원, 공학 체험 등	5.13.(토)	특수교육원	사전예약
	어린이날 수학데이	가족체험수학	5.5.(금)	밀양수학체험센터	
거제	2023. 거제 어린이 축제	식전행사 및 테마별 프로그램 운영	5.5.(금)	거제시공설운동장	현장참여
	거제행복교육지구 마을어린이축하행사	블루시티 거제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5.1.(월)~5.5.(금)	일운면·아주동·거제면·장목면·하청면·장승포	
	어린이날 수학데이	테셀레이션 그림톡 만들기	5.5.(금)	거제수학체험센터	현장접수
양산	양산행복교육지구 마을배움터와 함께하는 가족의 달 행사	뽀뽀한 가족 놀이 마당(체험부스 등)	5.1.(월)	양산초 운동장 및 숲 체험길	현장참여
		별별 어린이축제(퀴즈대회, 보물찾기 등)	5.5.(금)	별별마을학교 및 인근시설	사전예약
		오!오!오! 잔치(공연, 체험 등)	5.13.(토)	오봉초 운동장	현장참여
		돌여울장 (알뜰시장, 공연, 체험부스 등)	5.20.(토)	상북초 운동장	현장참여
	어린이날 수학데이	가족체험수학, 자유관람	5.5.(금)	양산수학체험센터	사전예약
의령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놀이한마당	다양한 공동체 놀이활동, 명랑운동회	5.5.(금)	서동생활공원 다목적구장	현장참여
함안	발명의 발견	함안발명교육센터 체험부스 (오토마타, LED팬이등)	5.5.(금)	함주공원	현장참여
	에코 함안	친환경생활용품 만들기 체험			
창녕	아이좋아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가족공예체험, 전통장체험, 길거리 공연, 장애공감문화체험활동 등	5.5.(금)	우포늪생태체험장	현장참여
고성	2023년 어린이날 행사	DIY 무드등 만들기 체험, 올바른 외래어 표기 퀴즈 맞추기	5.5.(금)	고성스포츠파크 4구장	현장참여
남해	어린이날 기념식 및 축제 한마당	기념퍼포먼스,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등	5.5.(금)	남해군 서면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현장참여
하동	하동 어린이 큰잔치	마술·버블공연, 어린이뮤지컬, 캐릭터 퍼레이드	5.5.(금)	하동군공설운동장	현장참여
산청	산청군 어린이날 기념 뮤지컬공연	어린이 뮤지컬 공연	5.3.(수)	산청문화예술회관	사전예약
함양	함양 어린이잔치 한마당	놀이 마당(체험마당 및 놀이마당)	5.5.(금)	상림일원 (토요예술무대)	현장참여
거창	어린이날 수학데이	수학미션(프리드먼 퍼즐 만들기, 4차 라틴방진 만들기, 펜토미노 퍼즐)	5.5.(금)	거창수학체험센터	사전예약
합천	합천가족사랑체험	가족단위 체험처 방문 및 마을교육 체험	5.13.(토)	합천사랑체험처	사전예약



최근 몇 년 동안 스트리트 댄스 크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화제였다.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스트리트 댄스 장르에 대한 관심은 물론, 댄서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와 인기 또한 높아졌다. 여기, 우리와 가까운 진해에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최고의 비보이(B-Boy)* 팀을 꿈꾸는 아이들이 있다. 열다섯 살 데니스와 하임, 열네 살 태주와 열세 살 가빈이가 속해있는 키즈 비보잉 크루 <바모스>(Vamos)*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또래 크루 중에선 단연 독보적인 실력으로 주목받는 <바모스>. 이들의 특별한 성장담에 귀 기울일 시간이다.

- ◆ 비보이(B-Boy) 스트리트 댄스의 한 장르인 비보잉을 추는 남성 댄서를 뜻함
- ◆ 바모스(Vamos) 스페인어로 '가자, 갑시다!'라는 뜻

- 01 춤을 가르쳐주고 있는 김영인 국장
- 02 왼쪽부터 이데니스, 양하임, 서태주, 이가빈



호기심에서 꿈이 된 춤

<바모스>의 시작을 말하기 위해선 데니스, 하임, 태주, 가빈이가 살고 있는 진해희망의집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진해희망의집은 1945년 설립 이후 가정 해체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 <바모스>는 2021년 여름, 15년 동안 비보이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김영인 국장이 만든 동아리에서 시작된 팀이다.

김영인 국장 “오랫동안 추던 춤을 그만두고 희망의집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한동안은 춤을 생각하는 것도 싫었어요. (웃음) 그러다가 하루는 작은 호기심으로 아이들에게 ‘너희 춤춰 볼래?’라고 물어봤더니 하겠다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마침 연습 공간도 있어서 2020년 8월에 열 명의 아이들과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나자 춤에 진지해진 아이들이 생겨났다. 김영인 국장의 눈에도 아이들의 변화와 가능성이 보였고 2021년 8월에 데니스, 하임, 태주, 가빈과 함께 키즈 비보잉 크루 <바모스>를 결성했다. 취미로 추던 춤에서 프로 비보이를 꿈꾸는 영역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이가빈 “기술을 새로 배울 때는 ‘이걸 언제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습하다 보면 결국 하게 되니까 신기해요. 춤을 추면 기분도 좋고요.”

서태주 “이전에는 따분한 시간이 많았는데 춤을 시작하고 나선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대회에 나가서 느끼는 긴장감도 좋고, 좋은 성적을 거둘 때도 재미있어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팀

한쪽 벽면은 거울로 되어 있고, 폭신한 매트가 깔려있는 연습실. 네 명의 아이들은 거의 매일 이곳에 모여 하루 네 시간씩 연습을 한다. 김영인 국장과 또 한 명의 전문 댄서 지도 아래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바모스>는 지난 2년 여러 대회에 출전하며 이름을 알려왔다. 한국에서는 키즈 비보잉 크루가 많지 않은 데다 어린 나이에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바모스>는 존재감을 확실하게 키우고 있다. <바모스> 팀원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무엇일까.

이데니스 “작년 5월에 WBC(월드 브레이킹 클래식) 한국대표 선발전에 <바모스>가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무대를 주목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춤을 보여주는 일이 긴장되면서도 신기하고 좋았어요.”

그 외에 아이들은 전주그랑프리 대회, 브레이킹K 대회 이야기도 언급했다. 연습실 한쪽에는 그동안 <바모스>가 대회에서 수상한 상장과 상패가 진열되어 있다. 그중엔 한 대회에서 태주가 ‘KIDS NEXT DOOR MVP’로 뽑힌 것도 있다.



김영인 국장 “물론 비보잉 크루 중에 키즈 크루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모스>가 주목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래 크루 중에선 <바모스>의 실력이 단연 뛰어나고요. 어느 대회를 나가든 팀원들 모두 1, 2위를 다투는 실력이에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팀이죠.”

꿈을 향해 바모스!

인터뷰 당시 <바모스>는 4월 함안에서 열리는 ‘함안스트리트댄스페스티벌’과 작년에 이어 또 한번 초청을 받은 WBC 대회 공연 준비에 한창이었다. 연습 과정이 궁금하다는 말에 인터뷰 내내 쑥스러워하던 아이들은 금세 진지한 모습으로 준비 중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바모스>로 활동하며 춤을 춘 지 햇수로 3년 차. 그동안 아이들 스스로 느끼게 된 변화가 있을까?

이가빈 “저는 춤을 추고 나서 떨리는 게 많이 나아졌어요.”

서태주 “친구가 많이 없었는데 춤을 추고 나서 친구들이 저에게 관심이 많아진 걸 느껴요.”

양하임 “다른 지역으로 대회를 많이 다녀보니까 무서움이 좀 줄었어요. 예전에는 낯선 곳에 가면 선생님 팔짱을 꼭 껴야 했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다닐 수 있어요.”

연습은 물론 모든 대회에 동행하는 김영인 국장 역시 아이들의 변화를 다양한 면에서 체감한다고 했다.

김영인 국장 “네 명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춤을 추면서 아이들 마음 안에 쌓여있는 것들이 많이 해소돼서 그런지 화를 내거나 싸우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자신

- 03 바모스가 받은 상장 및 상패들
- 04 김영인 국장과 연습 중인 바모스
- 05 기술을 선보이는 가빈



감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가정의 아이들처럼 여러 경험을 많이 해보고, 자립심을 키워나가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타 지역 대회에 나가게 되면 여행 가는 것처럼 기차를 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며 다니면서 식사 예절도 알려주고, 제 도움 없이 지하철을 타는 훈련도 해요. 그런 면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성장한 게 보여요.”

그는 덧붙였다. 희망의집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이곳을 떠난 후에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라는 동안 많은 행복을 누리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비록 지금은 아이들이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른이 되어 지금을 돌아볼 때 ‘내가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자랐구나’를 느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일까. <바모스> 아이들도 팀에 대한 애정도가 높다.

서태주 “저에게 <바모스>는 가족 같아요. 매일 연습도 같이 하고, 대회도 같이 나가고, 같은 추억이 많으니까요.”

양하임 “저에게 <바모스>는 처음이자 마지막 팀. 끝까지 함께 계속하고 싶어요.”



앞으로 꿈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비보이’가 되는 것이라 말하는 <바모스> 아이들. 이들에게 춤은 어떤 의미일까.

이데니스 “저에게 춤은 말 그대로 꿈이에요.”

서태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가장 매력 있는 것.”

이가빈 “목표. 그래서 비보이가 되는 꿈을 꼭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양하임 “공기예요. 저는 춤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바모스>는 오늘도 연습실에 모일 것이다. 가장 좋아하는 춤, 공기 같은 춤, 꿈이자 목표인 춤을 추기 위해서.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며 잘 자라나는 일이고, 어른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들의 성장을 기쁘게 지켜보고 돕는 일이다. 마침 5월은 어린이날이 있는 달. <바모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이들의 성장기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바모스>를 함께 궁금해하고, 응원하는 어른들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마산YMCA
좋은아빠모임

그렇게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된다

문성지·이범진·최영준·임종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는 두 명의 아버지가 나온다. 그중 작은 전파상을 운영하며 세 명의 아이를 키우는 ‘유다이’는 좁은 욕조에서 아이들과 함께 목욕하고 같은 방에서 잠이 드는, 고장 난 장난감은 공들여 고쳐줄 줄 아는 아버지다. 그는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다.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하는 또 다른 아빠 ‘료타’에게 말한다. “아버지란 일도 다른 사람은 못 하는 거죠. 아이들에겐 결국 시간이라고요.” <좋은아빠모임> 회원들은 말한다. 우리가 모인 이유도 바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라고. 이들이 알려주는 좋은 아빠로 살아가는 방법. 그 방법이 궁금하다면 함께 귀 기울여보자.



01



02

육아를 고민하는 아빠들의 모임

양육자들의 고민은 결국 하나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좋은아빠모임>도 같은 고민을 가진 아빠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마산 YMCA 아기스포츠단의 아빠들을 주축으로 10년째 이어져오는 이 모임은 현재 26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에 이들은 각자의 육아 고민을 가지고 모인다.

임종윤 “월례회는 지난 한 달 동안 아이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날입니다. 아이와 함께 가면 좋은 곳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고민이 있으면 함께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최영준 “아빠들끼리는 한자리에 모여서 육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 모일 때마다 각자 육아 꿀팁도 방출하고, 서로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최영준 씨는 현재 <좋은아빠모임> 3기 회원 중 가장 오래 활동한 회원으로 2기 대표직을 맡기도 했다. (3기는 임종윤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선배 아빠로서 최영준 씨가 알고 있는 꿀팁은 무엇일지 궁금했다.

최영준 “아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식탁 예절이거든요. 아이가 혼자서는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와 놀아주며 밥을 먹게 하는 겁니다. 숟가락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시늉을 하거나 ‘뚝뚝 밥이 왔어요’라며 입에 밥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여섯 살 정도 되면 같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요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조금 맛이 없더라도 책임감을 느끼고 밥을 맛있게 먹거든요.”

01 왼쪽부터 문성지, 이범진, 최영준, 임종윤
02 ‘아빠모임놀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단체사진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아빠들

월례회 외에도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아빠놀이터’도 있다. 아빠와 아이가 엄마 없이 1박 2일을 함께 보내면서 엄마에게는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에게는 신나게 노는 시간을 선물하는 날이다. 버스를 타고 전통시장 여행을 떠나거나 마라톤 대회 참가, 캠핑, 체험학습 등 아이와 다양한 추억을 함께 쌓아간다.

이범진 “처음에는 엄마 없이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는데요. 아빠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면서 공동육아를 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줄더라고요. 또래 친구들이 많다 보니 아이들도 정말 즐거워해요. 아이가 행복하게 놀았던 그 시간에 아빠인 제가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아빠학교도 열린다. 배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 강사를 초빙해 함께 배우는 시간이다. 그동안 아빠들을 위한 성교육과 대안 교육, 아이들과 노는 법 등을 아빠학교를 통해 배웠다. 그렇게 <좋은아빠모임> 아빠들은 조금씩 자라고 있다.



좋은 아빠란 어떤 아빠일까요

<좋은아빠모임>은 그동안 두 권의 책을 발간했다. <집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까르르 몸놀이> 1·2권*이다. 집에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몸놀이를 소개하는 이 책은 기획부터 사진 촬영, 인쇄, 디자인까지 모두 아빠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아빠와 자녀가 몸놀이 동작을 시연한 사진과 친절한 설명이 실려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최영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몸놀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이들과 어떤 몸놀이를 하면 좋은지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하루 5분만이라도 아이들과 노는 시간을 보내면, 아이와 훨씬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의 첫 장을 펼치면 ‘아빠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하루 6분’이라는 통계 결과(2015년, OECD 삶의 질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자녀 돌봄에 대한 남녀 역할 인식도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인식이 높은



* 집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까르르 몸놀이 1·2권
책을 읽고 싶다면 마산YMCA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55-251-4835)



편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아빠들이 더욱 육아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범진 “아빠들의 육아는 선택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니깐요.”

임종윤 “사실 저희 세대는 어릴 때 아버지와 많은 교감을 하진 못했거든요. 제가 자라면서 느꼈던 결핍을 우리 아이들은 안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고민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해보는 것이 좋겠다. <좋은아빠모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아빠란 어떤 아빠인가요.

임종윤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공감해줄 수 있는 아빠가 좋은 아빠 아닐까요?”

최영준 “아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 좋은 아빠가 가장 좋은 아빠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문성지 “아이와 모임에 와서 함께 놀았던 날, 아이가 ‘아빠, 오늘은 아빠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동안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반성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했거든요. 그 과정이 저를 더 좋은 아빠로 성장하고 싶게 해주었기 때문에 좋은 아빠란 자신도 배울 줄 아는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이범진 “아빠와 함께하는 몸놀이 책 출간을 기념해서 유튜브 라이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시청자들에게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인가요?’라는 퀴즈를 냈었는데, 제 딸이 ‘우리 아빠가 좋은 아빠’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순간에 참 몽클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좋은 아빠이고, 누구든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03 우리 밀 체험장에서 밀가루 촉감 체험 놀이
04 팔룡산 숲속으로 아빠놀이터 체험을 가는 길



거점통합 돌봄센터

‘늘봄 상남’의 하루

• 늘봄 상남 운영 대상학교 창원상남초, 창원신월초, 웅남초, 사파초, 토월초, 외동초, 동산초, 남양초, 용지초, 용호초, 남정초 등 11개교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과 ‘만족’ 응답 비율이 98.5%를 기록한 놀라운 공간이 있다.

인근의 여러 초등학교 돌봄 수요를 소화해내는 ‘거점’ 역할과,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거점통합돌봄센터’가 바로 그곳이다.

2021년 3월 거점통합돌봄센터 1호 ‘늘봄 명서’가 문을 연 지 1년 6개월 만인 2022년 9월, ‘늘봄 상남’이 우리 곁에 찾아왔다.

창원상남초등학교를 비롯해 인근 10개 초등학교 101명(2023년 4월 기준)의 학생들이 저녁 8시까지 무지갯빛 시간을 보내는 공간.

‘늘봄 상남’의 하루를 만나러 가보자.

오전 11시

돌봄전담사 5명이 속속 늘봄 상남에 출근 도장을 찍는 시간이다. 사무 직원 4명, 통학 안전을 책임지는 자원봉사자 3명, 방역 자원봉사자와 안전지킴이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다.

아이들이 오기 전 늘봄 상남을 둘러봤다. 창원상남초 별관을 리모델링한 늘봄 상남은 돌봄교실 다섯 반, 학습실·미래교육실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실 일곱 반 등을 갖추고 있다. 동남쪽으로 난 창으로 컴퓨터와 놀이터, 돌봄교실에 따뜻한 햇살이 밀려 들어온다.

오후 1시

창원상남초 정문으로 노란색 통학버스가 한 대 들어온다. 학

년별로,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1시 전후에 도착한다. 거점통합돌봄센터라는 명칭에 맞게 늘봄 상남은 건물이 있는 창원상남초등학교를 비롯해 돌봄이 필요한 인근 10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수용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통학 문제로 돌봄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로 통학 버스를 마련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두 번째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이들이 도착하면 늘봄은 더욱 활기를 띤다. 돌봄전담사마다 놀이를 먼저 하기도 하고 책 읽기를 통해 분위기를 정돈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저마다 선택한 방과후학교 또는 단체활동 프로그램으로 더욱 밀도 높은 오후 시간을 보낸다. 방과후 학교는 연초 학부모 수요 조사를 거쳐 결정된 24개 프로그램이 요일별로 운영되는데, 무엇보다 늘봄은 수업 목적에 맞는 맞춤형 공간을 갖추고 있어 양질의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이 용이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전면에 대형 거울을 갖춘 1층 어울림실에서 뮤지컬·방송댄스를, 방음 시설과 무대가 갖춰

진 도레미실에서 바이올린과 플루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이다. 아이, 학부모는 물론 방과후학교 강사의 만족도도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후 4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교하는 시간이다. 누군가는 태권도학원으로, 누군가는 집으로 향하며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든다. 이때 원칙이 있다. 반드시 정해진 보호자에게 아이를 인계하는 것. 사전에 보호자와 상의한 대로 엄마, 아빠, 조부모, 학원 차량 등 정해진 이에게 아이의 손을 넘기는 것이 원칙이다.

오후 6시

늘봄은 돌봄 이용 대상, 운영 시간 등에서 일반 초등학교와 차별점을 갖고 있다. 보통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운영되지만, 늘봄은 1~4학년을 대상으로 저녁 8시까지 운영된다. 이 때문에 늘봄에서는 저녁을

먹는 아이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 저녁 식사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 요즘 늘봄 상남에서 저녁 돌봄까지 남는 아이는 15명 남짓. 늘봄 상남 개관 때부터 함께 해오고 있는 정순희 돌봄전담사는 6시 이후 아이를 데리러 오는 보호자의 표정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모습이 교차한다고 했다.

☞ 정순희 돌봄전담사 “우리 아이만 남아있으면 어떡하지”하며 다급하게 아이를 데리러 오는 보호자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쓰여요. 저는 자녀가 20대가 되었지만, 아직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돌봄전담사도 있고요. 저녁까지 돌보다 보니 더더욱 모두가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늘봄에는 방학이 없다

늘봄에는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방학. 학기 중 평일은 물론이고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방학 중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운영된다. 여기에 긴급돌봄, 수시돌봄도 함께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용자가 많은 편은 아니다.



01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언제나 문을 여는 곳, 늘봄 상남이다.

☞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총괄 문종녀 장학관 “제가 1991년에 창원 상남초에 근무했는데 당시 72학급이 있었거든요. 30년이 흐른 지금은 26학급이 있으니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늘봄 1·2호가 각각 명서초, 창원상남초에 자리하게 된 이유도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그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양질의 돌봄과 수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여기에 ‘거점’과 ‘통합’으로 해답을 찾은 것이 바로 늘봄. 공동화된 도심 지역 학교의 노는 공간을 활용하면서 돌봄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양질의 수업도 가능한 새로운 돌봄 모델이다 보니 전국 시·도 교육청의 문의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공적 돌봄의 지평을 넓힌 전국 첫 사례라는 자부심과 함께, 이제는 공적 돌봄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는 책임감으로 늘봄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려 대상 1순위는 뭐니 뭐니 해도 아이들이다.

☞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총괄 문종녀 장학관 “하루는 어느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는 ‘혼자 책놀이터에서 매일 시간을 보내는 아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확인해보니 맞벌이 가정이었었고, 엄마의 근무시간 문제로 늘봄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구성원 간 논의 끝에 결국 방법을 찾았고, 아이는 늘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죠. 때로는 서류와 매뉴얼을 뛰어넘는 돌봄도 필요하다는 걸 느낀 적극 행정 사례였어요.”

‘늘 봄처럼 따뜻하게, 늘 아이들을 돌본다’는 의미를 가진 ‘늘봄’.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늘봄은 오는 9월, 김해 장유 삼문초에 3호 개관을 앞두고 있다.



04

- 01 오후 6시, 돌봄교실에서 저녁을 먹는 아이들
- 02 저녁 식사를 지도하는 돌봄전담사
- 03 방과후학교, 단체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낸다
- 04 ‘일과 끝!’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와 학부모

지난 3월, 거창아림고등학교에 평균 연령 78세 실버 학생 14명이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2019년 거창군이 경남 최초로 시행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중학교 과정*을 경남도립거창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어르신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등록한 것이다. 60여 년 만에 교복을 입은 이들은 말한다. ‘우리를 부를 때는 꼭 이름과 학생으로 불러주세요.’ 여느 고등학생들처럼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긴 세월을 보내고서야 갖게 된 소중한 학창시절을 누구보다 뜨겁게 보내고 있는 1학년 4반 하성원(80세), 신용숙(77세), 정철임(76세), 박옥이(75세) 학생을 만났다.



60여 년을 기다려온 꿈같은 학창시절 거창아림고등학교 1학년 실버 학생들을 만나다

#01

그토록 되고 싶었던
고등학생이라는 꿈

Q.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일흔이 넘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일은 결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고등학교 진학을 결심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성원 저는 50년 동안 건축 일을 했어요. 현장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경험도 많이 쌓고, 기술에도 자신이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늘 ‘내가 조금만 더 배웠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흔다섯에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지인이 거창대학 평생교육원에 가면 중학교 졸업증을 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죠. 그래서 중학 과정에 등록하게 됐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아림고등학교에 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신용숙 종갓집 딸로 태어나 중학교까지는 졸업했는데 읍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가려면 40리를 걸어가야 해서 집에서 보내주질 않았어요. 평생 이를 수 없는 꿈으로 마음에 남겨둔 거죠. 그렇게 맘먹느니로 시집가서 살림하고, 육남매를 키우고 나니 지금 제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우연히 중학교 졸업증이 있으면 아림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결심에 망설임은 없었어요. 너무 오고 싶은 학교였거든요.

정철임 저는 만딸이라서 살림해야 된다고 중학교를 안 보내줬어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해봤거든요. 직장도 다녀보

고, 장사도 해보고, 택시 운전도 해보고요. 그런데 학력이 부족하니까 살면서 참 한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제가 머리는 참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동생들도 ‘큰언니가 배웠으면 우리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런 말을 많이 했죠. 늦었지만 중학교 공부를 끝냈으니 고등학교에 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옥이 저도 딸은 더 배워봤자 소용없다고 고등학교를 안 보내줬어요. 그때는 어찌나 학교에 가고 싶었던지 일주일을 굶었죠. 사회에 나와서 회사 생활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참 힘들게 키웠는데 어느 날 막내딸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알려줬어요. 거기 가서 엄마 한을 좀 풀어보라고.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고, 고등학교까지 온 거예요.

글 김달남 사진 백동민



Arim-high school



* 문해교육 프로그램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3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초등과정 또는 중학과정 학력인정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도 아림고등학교에 18명의 실버 학생이 입학 했으며, 이들 모두 한 명도 낙오 없이 2학년 교과과정을 밟고 있다.

66

등교를 하는 기분,
매일 아침 내가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참 좋습니다.

99



01

Q. 꿈에 그리던 학교에 입학하던 날, 어떤 기분이셨는지 듣고 싶어요.

하성원 입학식 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직접 우리를 환영해주셨어요. 제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받고 나니 '내가 정말 고등학교생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지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신용숙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지요. 입학식 날 강당에 들어서니까 오래전 중학교에 다녔던 기억도 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마치고 애국가를 부르는 동안엔 목이 메어서 노래가 안 나왔어요. 너무 벅차고,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정철임 교복을 입으니까 날개가 달린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았고, 처음 교실에 들어

가서 자리에 앉을 때는 '여기가 내 자리구나' 싶어서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멋진 우리 김예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박옥이 학교에 오고 한동안은 꿈인가 싶어서 내 살을 꼬집어봤어요. 어릴 때는 학교에 가는 꿈을 그렇게 꿔는데, 요즘에는 늦잠을 자서 학교에 못 가는 꿈을 꿉니다. 학교에 못 가게 될까 봐 그게 무서운가 봐요.

Q. 학교에 오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학교에 다녀보니 어떤 점들이 가장 좋은가요?

하성원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제일 좋지요. 수학교, 영어도 어렵지만 선생님들이 저희 수준에 맞춰서 애써서 알려주시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박옥이 매일 아침마다 내가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참 좋습니다.

정철임 수업 시간도 좋고, 점심시간도 좋아요. 최고급 식단이라 밥이 정말 맛있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갈 때는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폴짝폴짝 뛰어요. 마음만은 열아홉 살이에요. 다가오는 소풍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02

다시 없을 소중한 우리들의 학창시절

Q. 수학 수업 시간을 잠시 엿보았는데, 다들 정말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정철임 수업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문제지요. (웃음)

신용숙 선생님께서 복습하라고 프린트물을 나눠주시는데 가끔은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반장이 프린트물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한테 벌금을 거둡니다. (웃음)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살림을 하면서 틈틈이 복습을 합니다. 인덕선에 냄비 올려놓고 그 사이에 영어 단어를 외우고, 밤에 잠에서 깨면 일어나서 또 공부를 하고 그래요.

Q.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학창시절'이 어떤 추억으로 남을 것 같으세요?

정철임 우리끼리는 누구 하나 학교를 그만둘까 봐 서로 용기를 주려고 하거든요. 나약한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야기해 주고, 친구가 몸이 아파서 처져 있으면 집에 가셔도 수시로 전화를 해요. '약 챙겨 먹어라. 잘 자고 내일 학교 오이라. 니 오늘 몇 시에 올 거고.' 다들 어렵게 여기에 왔는데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졸업을 하고 동창회를 할 때 즈음엔 다들 여든이 넘었을 텐데, 그때는 지금을 돌아보면서 참 젊었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학교 다닐 때 정말 즐거웠다고 웃게 될 거라고.

Q. 먼 훗날 동창회 풍경이 궁금해지네요. 졸업 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하성원 가능하면 대학교에도 진학해서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최종적으로는 제 건축 회사를 차려보는 것이 꿈입니다. 혹시나 지금 배운 걸 못 써먹을망정,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아야지요.



www.gn.go.kr
경남도교육청

- 01 수업 후 칠판을 닦는 반장
- 02 수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
- 03 왼쪽부터 하성원, 신용숙, 정철임, 박옥이
- 04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

신용숙 기회가 된다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잔잔하게 들려주고 싶네요. 이웃집 할머니처럼요.

김인자, 박옥이, 손석순, 신용숙, 양금순, 이복희, 이연식, 전예록, 정복달, 정수임, 정철임, 하성원, 황임조, 심순덕.

정철임 이제 배워서 뭘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대학교에도 갈 거고, 제가 관심 있는 친환경 분야 논문도 써보고 다양한 활동도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압니까?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지!

박옥이 저는 몇 해 전에 뇌경색이 와서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꿈은 친구들과 모쪼록 건강하게 학교를 졸업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지금. 누군가에게는 학교에서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한평생 꿈이었고, 한이었다는 사실이 몽클하게 다가온다.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고등학생이라는 꿈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마치 꿈처럼 느껴진다는 14명의 학생들.



04



가족과 함께 영화 같은 5월을 보내고 싶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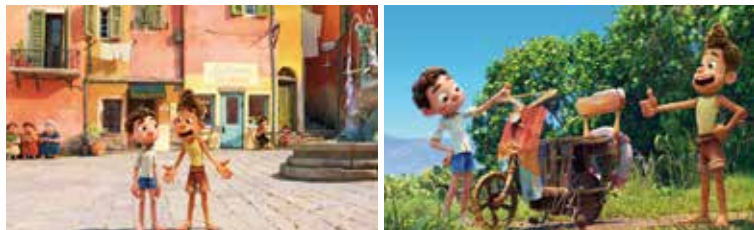
일 년 중 가장 푸르른 계절인 5월입니다.
초록 초록한 나무들과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 맑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있으면 왜 5월이 계절의 여왕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5월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들과 어떤 5월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함께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도 좋지만, 오랜만에 가족들과 영화를 보며 웃고 우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족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번 <방구석영화관>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보면 더 좋은 영화 3편을 추천해 드립니다.

MOVIE 루카

개봉 2021.6.17. 감독 엔리코 카사로사 등급 전체 관람가 장르 애니메이션, 모험, 코미디
국가 미국 상영시간 95분

우린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이탈리아 리비에라의 아름다운 해변 마을, 바다 밖 세상이 궁금하지만, 두렵기도 한 호기심 많은 소년 '루카', 자칭 인간세상 전문가 '알베르토'와 함께 모험을 감행하지만 물만 닿으면 바다 괴물로 변신하는 비밀 때문에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새로운 친구 '줄리아'와 함께 젤라또와 파스타를 싣고 스쿠터 여행을 꿈꾸는 여름은 그저 즐겁기만 한데... 과연 이들은 언제까지 비밀을 감출 수 있을까? 함께라서 행복한 여름, 우리들의 잊지 못할 모험이 시작된다!



MOVIE 인스턴트 패밀리

개봉 2018.11.16. 감독 손 앤더스 등급 12세 관람가 장르 코미디, 드라마, 가족 국가 미국
상영시간 118분

우리한테 뭐든 얘기해주면 좋겠어. 우리는 너를 사랑하니까.

피트와 엘리 부부는 자신들의 아이를 낳는 대신 입양을하기로 하지만,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대부분의 가정에서 입양하기를 꺼리는 십 대 아이 세 명을 입양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서로가 서로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갈등을 겪게 되지만 점차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MOVIE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개봉 2013.12.19.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등급 전체 관람가 장르 드라마, 가족 국가 일본
상영시간 121분

아이들에겐 결국 시간이라고요.

자신을 닮은 똑똑한 아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성공한 비즈니스맨 료타는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6년 간 키운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고 병원에서 바뀐 아이라는 것. 료타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른 친자의 가족들을 만나고 자신과 아들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막 움튼 연초록 세상은 참으로 싱그럽다. 계절의 여왕은 보란 듯이 그 위엄을 뽐낸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지나면서 새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나날이다.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계절이지만 살짝 느슨하고 한적한, 그러면서도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엄마표 도서관 여행>의 저자 이윤나는 “도서관에 책만 읽으러 간다는 생각을 바꾸어 보라”고 권한다. “도서관에는 종이에 쓰여 있는 글자를 읽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것이고 몰랐던 사실을 깨치러 가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도서관 가는 것은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봄날의 도서관을 좋아하세요?’

함안도서관·무진정·함안강나루생태공원



01 함안도서관 앞
02 2층 집중독서존



도서관 가는 것이 여행이라면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

아라가야와 미래를 잇는 함안도서관이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 28일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16 새로운 터에 아늑한 카페 분위기에 최신식 시설을 장착한 함안도서관을 개관했다.

‘독서문화의 새 별을 쏘다’라는 주제로 열린 개관식에서 알 수 있듯이 함안도서관은 책과 공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담았다. 도서관을 둘러보면 서 함안의 역사와 전설도 엿볼 수 있다. 사실 함안도서관은 2019년 당시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6급 기관장 도서관 가운데 도서 대출이 2위에 해당할 만큼 수요가 높았다. 하지만 기존 도서관은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오래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이번 개관이 더욱 반가운 이유다.

이제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보자. 1층에 들어서면 규모도 규모지만 2층까지 탁 트인 개방감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경남교육, 재미를 만나다

힐링필링 경남교육명소

지혜를 원함(one-HAM)을 주제로 ‘지혜의 책으로 하나 되는 우리’라는 목적에 맞춰 꾸며졌다. 홍련(휴게실)과 독서체험행사를 운영하는 무진 공방이 있다.

홍련과 무진은 아라홍련과 대표 관광지인 무진정에서 이름을 땄다. 함안의 옛 지명인 아라가야에서 착안한 어린이 자료실 ‘아라누리’는 아이들이 맘껏 책을 즐길 수 있도록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모두를 위한 공간(We-HAM)’으로 꾸며진 2층은 카페 같은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위안과 위로를 주겠다는 취지를 잘 표현했다. 종합자료실에는 책이 있는 공간 외에도 기후 위기와 생태환경 주제 도서가 모여 있는 에코존, 만화책을 열람할 수 있는 코믹스, 조용히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집중독서존 등이 있다.

3층은 함안이 걸어온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를 조망하는 배움과 열정의 공간으로 미래에 고향(Go-HAM)이라는 주제를 담았다. 섯별(자율학습실), 함주홀(시청각실), 통합방·다함방(강좌실), 야외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함주홀은 함안의 고려시대 지명 함주에서 착안했다.

특히 함안도서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곳곳의 공간에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명	일시	장소
인문학 강연: 가족에게 권하는 인문학	13일(토) 오후 3시	3층 함주홀
인형극 <뚜비 메가파워>	7일(일) 오후 2시	3층 함주홀
1도서관 1특성화: 읽고 맛보는 우리 함안	1일(화) 선착순 200명	1층 아라누리, 2층 가야누리
미션, 숨겨진 쪽지를 찾아서	1일(화) 선착순 50명	1층 아라누리
카네이션 리본 브로치 만들기	1일(화) 선착순 100명	1층 아라누리
북페이스 콘테스트	28일(일)까지	1층 아라누리
시즌2 <그림책을 펼쳐라>	1일(화) 선착순 50명	1층 아라누리
상설전시 <함안미술협회 릴레이전>	5월 한 달간	1층 로비 전시게시판

※ 함안도서관 5월 행사안내 일부 행사는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및 현장 참여와 같은 자세한 모집 방법은 함안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해 주세요.
(행사관련 문의 : 055-583-6924)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16
- 운영 1층 아라누리(어린이자료실), 2층 가야누리(종합자료실)
: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월요일 휴관)
3층 섯별(자율학습실)
: 오전 9시 ~ 밤 10시(월요일은 오후 6시까지)
- 누리집 <https://hmlib.gne.go.kr/>
- 문의 055-583-6919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 끝났다면 이제 봄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자.

도서관에서도 만날 수 있었던 무진. 무진정은 조선시대 문신이었던 조삼 선생께서 후진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내려고 함안면 괴산리에 직접 지은 정자다. 자신의 호를 따라 무진정이라 이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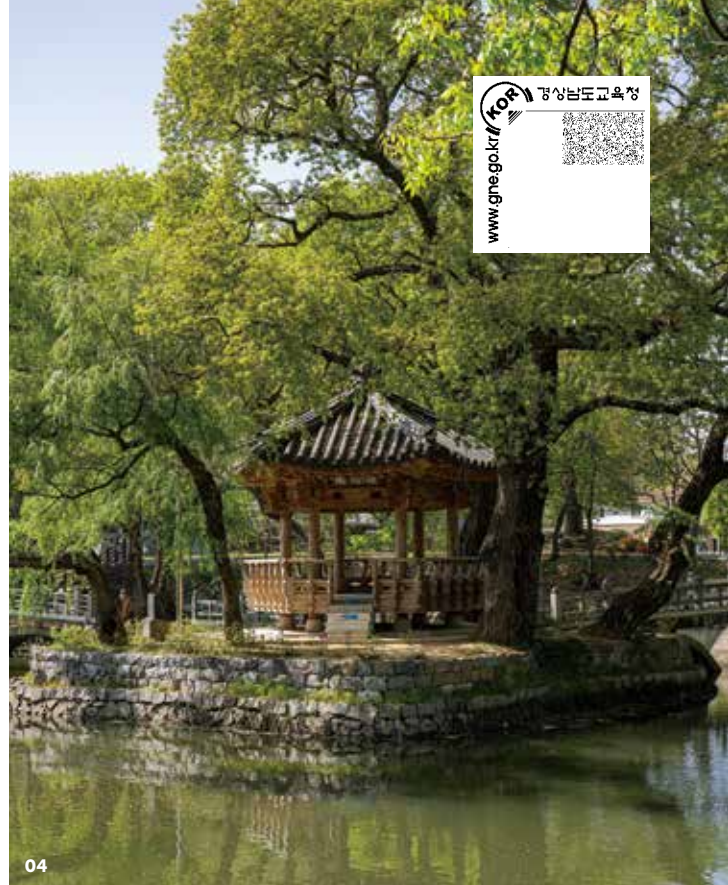
도로 바로 옆에 이런 절경이 펼쳐지리라 생각지 못한 까닭에 더욱 그 경치가 감탄을 자아낸다. 연못과 어우러진 돌다리는 한 폭의 그림이다. 돌다리를 걸어가 정자에 올라가면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온다. 이런 곳에서 책을 읽는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다. 산책하듯 휘둘러보고 가기 좋은 곳이다.

북쪽으로 낙동강과 남강을 끼고 있는 함안을 놓치기 싫다면 함안 강나루 생태공원을 추천한다.

낙동강을 끼고 광활하게 펼쳐진 함안 강나루 생태공원은 딱 이 봄, 작약과 등나무 꽃 그리고 넓은 들판에 청보리가 펼쳐진다. 생태공원의 청보리는 함안 7경에 속해 있을 정도로 장관이다.

자전거를 타고 둘러보기를 추천한다. 마냥 걸으며 여유를 느끼고 싶다면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양산이나 모자를 꼭 챙기길 바란다. 낙동강 전망대에 서면 편안함을 주는 낙동강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강나루 생태공원 내에는 오토캠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가족들 쉼터로 인기가 많다. 캠핑장 외에도 산책로, 자전거길, 축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의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 03-04 무진정의 연못
- 05 하늘에서 내려다본 강나루 생태공원
- 06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생태공원의 오토캠핑장



가족과 함께 단단한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저출생 시대, ‘7남매’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숫자다.

7남매가 사는 집은 무엇이 다를까.

이들의 탄생부터 육아, 생활방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울려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지혜를 가져다주는지도 자연스레 알게 된다.

거울이 되어주는 존재가 남들보다 많은 덕에 더욱 단단하게 성장하는 가족.

김해에 사는 권영웅·이민정 부부와 7남매 이야기를 만나보자.

권영웅·이민정

부부와 7남매



첫째 권예빈
22세

둘째 권하빈
19세

엄마 이민정
김해동광초 교사

아빠 권영웅
김해교육지원청 장학사

셋째 권세로
15세, 삼계중2

일곱째 권레이
17개월

다섯째 권시은
11세, 용산초4

여섯째 권이레
8세, 용산초1

넷째 권대로
12세, 용산초5

글 임승주 사진 백동민



7남매

역사의 시작

7남매 역사의 시작, 그 뿌리를 찾아가 보자. 엄마 이민정 씨는 22년 차 교사, 아빠 권영웅 씨는 교사 생활을 하다 현재 김해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다. 두 사람은 학교 동료의 주선으로 처음 만났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추진할 정도로 빠르게 서로를 알아 보았다. 그건 두 사람 사이에 신앙이라는 다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남다른 가족 계획’의 비결을 물을 차례. 부부는 “생명이 하늘에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7남매라는 많은 가족을 두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

이민정(엄마) “딸 둘을 낳고는 아들을 갖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셋째로 아들을 주시면 넷째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낳겠습니다’ 기도했죠.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넷째까지 낳았는데, 어느 날 다섯째가 생긴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막막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둘째 하빈이가 세 살이 됐을 무렵, 육아를 도와주던 친정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며 그마저도 어렵게 된 시기였다. 그럼에도 이민정 씨는 일곱 자녀를 낳고 키우는 내내 육아휴직을 통틀어 1년도 채 쓰지 않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돌봐준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잘해준 덕분이었다. 특히 첫째, 둘째가 부모 역할을 톡톡히 했다. 첫째, 둘째가 다섯째, 여섯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식으로 기꺼이 공동육아에 참여하며 엄마와 아빠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대화가 넘치는

가족

물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침저녁마다 전쟁이 따로 없었다. 출근 때 입었던 원피스도 벗지 못한 채 저녁 밥상을 네 번 차리고, 밤 10시까지 청소하느라 지친 날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후 4시 전후로 귀가하는 ‘초등팀’ 세 명이 직접 밥도 안치고 한 끼 딱딱 해먹을 정도로 훌쩍 자랐다. 아이들을 키운 것은 다름 아닌 책임감, 그리고 자율성이었다.



권영웅(아빠)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라’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 많다 보니 이 자체로 작은 사회거든요. 사회에는 꼭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데 누군가가 약속을 안 지키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공동으로 약속한 것은 지키자고 강조하는 편이에요.”

이민정(엄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뉘달하면 결국 제 숨만 넘어가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엄마가 전부 챙겨줄 수 없어’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더 스스로 잘하는 걸 보면,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셋째 세로의 말에 의하면 “우리 집 평화의 비결은 역할 분담과 협력”이었는데, 각자 역할 분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혼자 책임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한다는 이야기였다.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하는 데 17개월 막내가 무얼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형들과 함께 나가서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도 누르며 제 몫을 찾아가는 식이다.

서로 대화가 많은 것도 화목한 가족의 비결이다. 부모들이 그토록 두려워한다는 사춘기 때도 “제발 말 좀 그만해라” 할 정도로 이 가족은 특별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새벽 2시까지 엄마·아빠에게 이야기하는 중학생 자녀라니.

은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려 일주일 동안 격리하던 시기에도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신나기만 했다는 7남매. 대로, 시온, 이레는 “집에만 있어서 우울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할 정도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돈독한 친구가 여섯 명이나 있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권이레(여섯째) “밖에서 친구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아요. 심심할 틈이 없어요. 누나랑 형이랑 동생이랑 놀면 되니까요. 밖에 못 나갈 때 집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농구, 축구도 개발했어요. 제가 친구들보다 아는 놀이가 많을걸요?”

아이는

우리의 어른

무남독녀로 자란 엄마 이민정 씨는 시간도, 삶도,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흘러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었다. 정해진 시간에 현관을 나서야 하고, 아이 몇 살에는 어떤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많아질수록 자연스레 내려놓는 것도 많아졌다. 이미 어른인 자신보다, 일곱 남매가 부대끼며 자라는 모습에서 ‘어른의 모습’을 더욱 자주 보게 되었다.



이민정(엄마)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오니 현관에 똥기저귀랑 옷이 널려 있는 거예요. 둘째가 여섯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던 시기였는데, 분명 아침에 사달이 났겠다 싶었어요. 사춘기 아이가 바쁜 아침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마나 화가 났을까 싶었죠. 저녁에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똥 어떡해, 옷 갈아입혀서 갔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똥 똥이면 치우면 되지 그게 화가 날 일이나고요.”

엄마가 둘째 하빈이에게서 배우듯, 요즘 첫째 예빈이는 엄마를 보며 배운다.

권예빈(첫째)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엄마예요. 성인이 되고 보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내가 엄마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고, 저희에게 늘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시는 게 보여서 더 대단하게 느껴져요.”

사실 이번 인터뷰를 앞두고 엄마 이민정 씨는 큰 용기를 냈다. 아이가 일곱인 것을 두고 ‘대단하다’ ‘애국자다’ 추켜올리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 많이 낳은 게 자랑이냐’ ‘하나 키우는 데 4억 든다는데 28억 있냐’하는 모진 말들도 들었다.

지금은 안다. 그런 말들도 다 흘러갈 것이란 것을. 이웃 어르신들이 부부에게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진짜 좋을 겁니다” 말해준 것처럼. 바쁜 아침 푸닥거리하고, 저녁상에 수저 놓는 데 한세월이 흐르는 것도 언젠가 다 추억이 될 거란 것을. 가족이 많은 만큼 어울려 사는 지혜도 넘쳐나는 울타리 안에서, 아홉 가족은 단단한 행복을 완성해가고 있다.

- 01 다섯째 시온이와 여섯째 이레
- 02 막내 레이를 안은 채 인터뷰 중인 부부
- 03 복직이는 신발들. 다복함 그 자체!

우리말 돋보기

두 번째 <신조어>

비 담

플 러 팅

국 룰

알 잘 딱 깔 센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조카·자녀와 대화할 때, 신조어를 몰라서 말문이 막혔던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 2021년 국립국어원이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9%는 신문과 방송에서 나오는 말 중 의미를 몰라 곤란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곤란함을 겪은 말로는 신조어가 43.1%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방송, 신문,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는 신조어를 모아서 그 의미를 알아보고 우리글로 쉽게 바꿔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 비담

‘아이돌 그룹의 잘생긴 멤버를 **‘비담’**이라고 하는 등 긴 표현을 두세 음절로 압축하는 줄임말이 널리 쓰인다.’
- 신동아 기사 중

‘비담’은 ‘비주얼 담당’의 줄임말로 주로 아이돌 그룹에서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최근 가수 아이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이유와 배우 유인나가 신조어 퀴즈를 진행했는데 이때 제작진이 ‘비담’이라는 신조어를 제시하자 유인나가 “비밀 담배 아니냐. 우리가 비밀리에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출처: 아이유의 팔레트 갈무리

2. 플러팅

‘유병재는 박진주를 만나자마자 “어제 무슨 일 있었냐. 더 예뻐졌네”라고 말하며 **플러팅**을 시작했다.’
- 매일경제 기사 중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행위를 ‘플러팅’이라고 하는데요. 플러팅(firting)은 ‘희롱하는’, ‘시시덕거리느’, ‘추파를 던지는’이라는 뜻을 지닌 영어 단어로 즉 집적대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병재는 박진주를 만나자마자 “어제 무슨 일 있었냐. 더 예뻐졌네”라고 말하며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다.’

신조어
퀴즈

다른 것을 제외한 사물 본래의 몸체. 또는 그 본래의 바탕이라는 뜻으로 ‘행복 그 ○○’, ‘천국 그 ○○’, ‘감동 그 ○○’ 등에 쓰이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① 자체 ② 잡채 ③ 존버 ④ 라떼 ⑤ 레알

3. 국룰

‘라면 면발은 살짝 꼬들꼬들해야 한다는 **‘국룰’**을 정석대로 지켰다.’
- 조선일보 기사 중

‘국룰’은 ‘국민 룰(rule)’의 약자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먹을 때 김치를 곁들이는 것, 튀김을 떡볶이 국물에 적어 먹는 것, 밥 먹고 네 컷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것 등을 요즘 말로 국룰이라고 합니다.

‘라면 면발은 살짝 꼬들꼬들해야 한다는 **‘불문율’**을 정석대로 지켰다.’



출처: tvn의 지구오락실 갈무리

4. 알잘딱깔센

‘오마카세는 한국, 일본 모두 주로 중·장년층의 비즈니스 용 음식이었는데 최근엔 MZ세대를 중심으로 (중략) MZ세대가 중요시 여기는 ‘인증 문화’와 **‘알잘딱깔센’**과 맞아떨어지는 메뉴라는 분석도 많다.’
- 경남신문 기사 중

말씀하기도, 외우기도 참 어려운 단어인 ‘알잘딱깔센’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생활이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적당한 선을 지키자는 의미로 사용하거나 알아서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씁니다.

학교폭력
예방웹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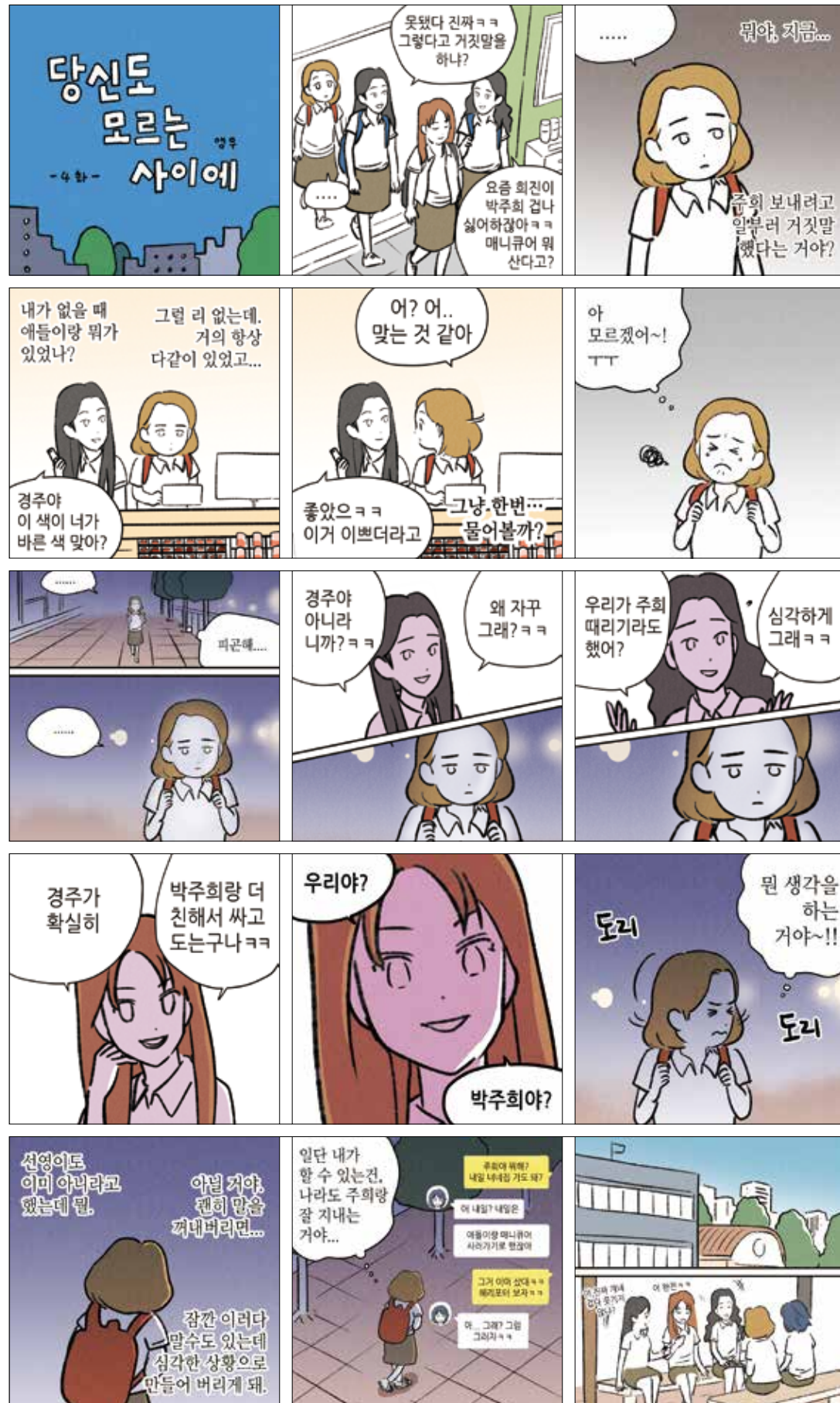
당
신
도

모
르
는

사
이
에

4화

웹툰작가 **앵무**



2024학년도 고입전형 그것이 알고 싶다

내게 맞는 고교 선택,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어느새 새 학기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2024학년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할지, 목표한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2023학년도 중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새롭게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될 경상남도 학생들을 위해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의 기본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지원자격

-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등)
 -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학교군별 추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가정폭력 피해 학생(2024학년도부터)
- 인접지역(울산, 부산), 군인자녀, 혁신도시 이전기관 근무자 자녀 등은 공고된 '2024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고

평준화지역 우선 배정 대상자

- 체육특기자, 지체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외), 다자녀학생, 중증질환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부 또는 모의 자녀, 특정 농어촌 원거리 통학자, 거제시 면단위 일반고 배정 희망자
 - 다자녀 학생 : 성인 포함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인 학생 중 둘째부터 합격자에 한해 주소지 근거리 학교 또는 형제 자매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우선 배정(2024학년도 변경)
 - 중증질환자는 합격자에 한해 주소지 인근 남녀혼성 또는 단성 학교 중 희망학교에 우선 배정(2024학년도 변경)
 - 쌍생아는 동일 학교 배정(합격자에 한함)

전형 구분(선발 주체 기준)

- 학교장 전형** 학교의 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 ▶ 과고, 외고, 체고, 예고, 마이스터고, 특성학교, 각종학교, 비평준화 일반고, 평준화지역 일부 일반고(12개교), 고등기술학교
- 교육감 전형** 평준화지역(구 창원·마산, 진주, 김해, 거제) 일반고
 - ▶ 학교장 전형과 교육감 전형 모두 중학교 내신 성적을 기본으로 선발함(일부 특목고 및 특성학교 특별전형 제외)

고등학교의 구분

- 일반고**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아래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 특수목적고**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 특성학교**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 자율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경남은 없음)
- 전기학교**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국제고 제외), 특성학교,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 후기학교** 전기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 일반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경남은 없음)

주요 전형

- 자기주도학습전형** 과학고, 외국어고 대상(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 면접, 내신성적 등으로 선발)
-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대상자 심사를 통과한 학생을 희망 고등학교에 바로 배치
- 체육특기자전형** 도교육청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학생을 종목별 해당 학교에 배정(정원 내 3%)
- 교육지원대상자전형**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정원 외 3%)
- 특례입학대상자전형** 특례입학자격자 중 선발(정원 외 3%)

고입 내신 반영

- 교과** 160점(80%)
- 비교과** 40점(20%, 봉사 15시간 15점+출석 15점+학교활동 10점)
 - ▶ (석차백분율 산정 방식), 일부 학교장 전형 학교는 다를 수 있음

TIP 입학 준비 전, 입학 예정 학교별 누리집을 통해 원서 접수일, 합격자 발표일과 같은 전형 관련 세부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숫자로 보는 경남교육



5년간(2018~2022년) 경상남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

쾌청한 봄날을 기대하는 우리 마음과 달리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탁한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 건강에 대한 염려도 크실 텐데요. 5년간(2018~2022년) 경상남도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발령 횟수를 알아보면 미세먼지(PM10) 주의보는 총 268회(32일), 경보는 총 43회(8일)입니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총 134회(43일), 경보는 총 14회(5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합하여 총 57회입니다. 이처럼 심각해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노력을 살펴봅니다.

1



요즘 뉴스를 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황사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먼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미세먼지(PM10)는 지름이 10 μ m 이하인 먼지로, 주로 연소작용에 의해 발생, 황산염, 질산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로 같은 유해물질로 구성됩니다. 미세먼지는 마스크만 잘 챙겨서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초미세먼지(PM2.5)는 지름이 2.5 μ m 이하인 먼지로, 주로 연소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지름이 훨씬 작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사는 주로 동아시아 대륙의 사막과 황토지대에서 겨우내 얼었다가 녹은 땅이 날리는 모래 먼지가 북서풍으로 타고 한반도로 날아와 온 하늘을 덮고 떠다니며 서서히 하강하는 현상입니다. 주로 토양성분으로 이루어지는 황사는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 크기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황사가 오면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2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하여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 뇌까지 직접 침투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몸 안의 면역 담당 세포가 먼지 제거 활동을 하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천식,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조기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OECD가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2010년 연간 359명에서 2060년에는 1,109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예측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에서의 대응요령은 ① 기상정보 및 미세먼지·황사 예보 등 수시 모니터링, ② 실외활동을 실내활동으로 전환하고 필요 시 실외활동 금지(경보발령), ③ 창문 닫기, 물걸레 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 활동진행, ④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학생 행동요령 교육 및 학부모 안내, ⑤ 미세먼지 대응 관련 방송 및 알림, ⑥ 공기정화장치 가동 및 기타 미세먼지 대응 실시로 총 6가지입니다. 경남교육청의 미세먼지 대비 조치사항으로는 우선 학교별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담당자와 대리근무자 1명을 상·하반기별로 지정하며, 미세먼지 빈발 시기인 3월과 11월 전에 17개 항목의 미세먼지 자체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도내 전 학교의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대용량 공기정화장치를 다목적강당(체육관)에 2022년 9개 시범 설치 하였으며, 올해(2023년) 10개 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미세먼지 경보에 대비하여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담당별 역할 협의와 회의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경남교육 NEWS



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 옥상에 태양광발전소 준공

유휴 공간 활용한 임대형 태양광 발전 설비로 탄소중립 실천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임대형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열었다. 준공식에는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심상완 이사장,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 안영선 이사장, 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성연석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임대형 태양광 발전시설은 경남교육청이 유휴 공간을 빌려주고 민간 협동조합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탄소중립 활동의 민·관 협력 모델이다.

경남햇빛발전소는 지난해부터 제2청사 옥상 유휴 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43.68k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로 연간 6만584kW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한 해 소나무 215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 전담부서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을 신설하여 생태 친화적인 학교환경교육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김해고, 주촌면으로 이전 추진

경상남도교육청 - 김해시 - 김해고총동창회 업무 협약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달 김해시, 김해고등학교총동창회와 '김해고등학교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김해시 활천로 24번길 29에 있는 김해고는 1974년 3월 개교해 지역의 중심 고등학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김해시 동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어들면서 김해고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학생 수 과밀지역인 장유·주촌면 인근으로 학교 이전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경남교육청과 김해시, 김해고총동창회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협의회를 열었다. 그 결과 주촌면 일대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날 협약식을 열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김해고를 포함한 관내 중학교 학부모 대상 학교 이전 동의와 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김해시와 총동창회는 이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학부모 동의 절차 추진 등에 협력한다. 앞으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8년께 이전 개교할 예정이다.

경남교육 NEWS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 목조화 방안 공개 토론회

전문가들,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 모델 제안... 제도 뒷받침 등도 논의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달 12일 본청 공감홀에서 '학교시설 목조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한국목재공학회를 비롯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목재문화진흥회 등의 전문가들이 주제를 발표하고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교육청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학교시설 목조화 방안을 토론하고 교육적 가치를 논의했다.

이날 관련 기관과 다른 시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청중으로 참석해 학교시설 목조화를 향한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학교시설에 목조화를 접목할 때 고려 사항으로 전문성 함양과 예산 단가의 표준화, 설계·디자인·구조·유지관리 부문의 지침 마련,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남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기후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성 등 학교시설 목조화가 미래학교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소중한 자리였다.



2026학년도 정시부터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의무 반영

정부 근절 종합대책 심의·의결 학생부 보존 기간 4년 연장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이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의무 반영된다. 또 학폭 조치사항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에 대한 학생부 보존 기간은 현재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보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전 학교 내 심의기구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에 대한 삭제 요건도 강화된다.

심의기구는 피해 학생의 동의 확인서, 가·피해 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결정 전에는 가해 학생이 자퇴할 수 없도록 했다. 학폭위에서 전학(8호) 조치가 결정되면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보완한다. 학폭 발생 후 학교장이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 분리 후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 교체도 추가하고, 가해 학생 출석정지 처분 역시 학폭위 심의 결정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이찬호

교육위원에게 듣는다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창원 5·국민의 힘)

Q1. 아이좋아 경남교육 소식지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찬호 의원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존폐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학교 교육의 많은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감소의 폭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러한 지역의 부족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 중 하나가 통합운영학교입니다. 향후 통합운영학교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통합학교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하는 데 깊은 관심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2. 교육위원으로서 어느 때보다 경남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실 텐데요. 평소 의원님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지, 의원님께서 바라는 경남교육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학교의 방향은 지역과 소통하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적 수준은 나날이 향상되어 문화·예술·복지·생활체육의 요구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학교의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 발전 방안의 하나로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시기입니다.

학교가 학생과 주민이 함께 머물고 활용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학교 기능이 재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교는 도서관, 체육시설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다양한 교육과정과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경남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경남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3. 현재 지역구인 창원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과제는 무엇인가요? 이와 관련해 새롭게 필요하거나 보완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창원지역은 전국을 기준으로 보아도 교육열이 높은 지역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의 창의력, 융합교육 등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또한 변화되고 있죠. 기업은 공감하고 소통하여 협업하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서 생각이나 사고로 전환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차세대들에 근본적인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교육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소식

경상남도의회, 제403회 임시회 개최

5분 자유발언 실시, 조례안 심사 등



경상남도의회 제403회 임시회가 11일(화)부터 20일(목)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한상현 의원 등 15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전체 안건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경상남도의회 제4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0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교육위원회를 지난 4월 12일 수요일에 개최하였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산회 후에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창원도서관, 과학교육원 및 김해도서관 3개 교육기관에 대한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하였다.

PUBLIC NEWS

메니페스토, “경남도지사, 공약 실천 계획 최우수” 평가

경남도지사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23 전국 시도지사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아 공약실천계획서를 가장 잘 만든 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경남을 비롯해 6개 시도다.

이는 민선 8기 경남의 비전과 소명, 종합적 기대효과, 4년간의 재정 운영 방향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세운 덕분이라는 평가다. 동시에 개별 공약에 구체성이 있고, 공약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구성·배치해 도민에게 알리고 있다는 점도 최우수 평가를 받는데 큰 플러스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메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 1월 말부터 3월까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 경남도지사 공약 실천 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자치단체장 출범 첫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 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을 공약실천계획에 담은 체계성과 구체성 정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 조정 등의 경우 도민의견 수렴 여부 등 민주성 ▲홈페이지를 통한 공약 정보의 명확성, 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한민국 우주경제 이끌 우주항공청, 연내 사천 설립 협조 요청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실과 수석전문위원실을 잇따라 방문해 우주항공청 연내 사천 설립 협조를 요청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6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경남도지사는 국회 과방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찾아 특별법 조기 통과를 건의하고 경남도의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특별법이 5월 안에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의 안착과 도시기반 조성을 추진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추진단 구성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우주경제 비전과 전략을 담은 ‘경남 우주경제 비전’을 상반기 중에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남해안 아일랜드 핵심 축 ‘한산대첩교’ 건설 청신호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와 국제적 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의 핵심 축 ‘한산대첩교’가 순조롭게 건설될 전망이다.

한산대첩교는 통영시 도남동에서 거제시 동부면을 연결하는 길이 9.0km, 총사업비 6350억 원의 국도 5호선 사업구간 중 통영시 도남동과 한산면을 잇는 길이 2.8km의 해상교량이다. 그간 경상남도는 오래전부터 한산대첩교 건설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왔고,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과 경남도지사 공약사업에도 반영됐다.

여기에서 최근 통영에서 열린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이 “통영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 잊지 않겠다. 한산대첩교 건설 역시 잘 챙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속한 추진이 가능케 됐다는 분석이다.

LOCAL NEWS

지금 아니면 못가요! ‘경남 5월 축제’

아름다운 봄날을 만끽하기 좋은 날, 경남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를 만나보세요!



산청 황매산철쭉제



밀양아리랑대축제

황매산철쭉제

일시 4월 29일 ~ 5월 14일

장소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1-1 /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군립공원 일원

내용 산청군 : 풍선·팝콘 나눔이벤트, 느리게 가는 러브레터, 사진 무료 인화서비스, 욕제 및 인절미 만들기, 황매산 곤충 대탐험, 농특산물 판매장터 등 ☎055)970-7204

합천군 : 교통약자위한 전동카트 준비, 숲 해설가 안내 가능, 힐링 철쭉콘서트 등 ☎055)930-4758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기간 5월 4일 ~ 6월 3일

장소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박물관 일원

내용 개막식, 트로트 콘서트, 싱포그린 퍼포먼스 합창, 엑스포 다드림 콘서트, 차 문화 체험, 차 및 차도구 경매전, 다원 스텝 프 랠리 등 ☎055)880-7070

창원 진동미더덕&불꽃낙화 축제

기간 5월 12일 ~ 14일

장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항 일대

내용 미더덕 및 오만동이 판매, 개회식, 축하공연, 제례, 해상불꽃 낙하쇼 등 ☎055)271-0571

하동북천꽃 양귀비 축제

기간 5월 19일 ~ 29일

장소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꽃단지 일원

내용 꽃 양귀비 주제 현장투어, 떡메치기,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농특산물 판매 등 ☎055)884-7416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 5월 18일 ~ 21일

장소 밀양시 영남루 및 밀양강변 일원

내용 미로 체험 ‘아리랑 메이즈’, 밀양아리랑 체험 및 전통놀이 ‘아리랑 원더랜드’, 밀양강 오딧세이, 밀양아리랑창작대회, 무형문화재 공연,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 등 ☎055)359-4500

양산웅상화야제

기간 5월 20일 ~ 21일

장소 양산시 웅상체육공원 및 회야강 둔치 일대

내용 가요스트 축하쇼, 회야가요제, 불꽃놀이, 전시 및 참여행사 등 ☎055)392-2547~8

함안낙화놀이

기간 5월 27일

장소 함안군 함안면 괴산4길 25 (무진정)

내용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3호 함안낙화놀이 재현, 우리음악 대향연, 제례행사, 낙화놀이 점화, 개막식, 초청가수 공연, 불꽃놀이 등 ☎055)580-2551

<아이좋아 경남교육> 4월호 예고편 영상 댓글 이벤트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일을 가장 해보고 싶나요?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해보는 것, 그리고 책 읽기!

황효정 님

어른이 돼서 책 읽기를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 읽었다면 제가 하고 싶은 걸 더 빨리 찾았을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해야 돼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배우는 건 다르다고 느껴져서 책을 많이 읽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제 가치관을 좀 더 빨리 정립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해보고 싶은 이유는 어렸을 때는 학교, 학원, 집밖에 몰랐어서 많은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자유롭게 :)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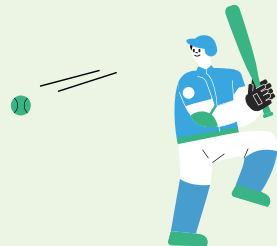
박진영 님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지금은 돌아가셔서 제 옆에 안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요. 그때 많이 속을 썩인게 돌아가신 다음에야 죄송스럽고 후회가 됩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 하지 못했던 효도를 마음껏 해보고 싶습니다.

어릴 적 꿈이었던 야구를 제대로 배워보기

권민석 님

예전부터 꿈이었던 야구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어릴 적 야구를 하다가 집안 사정으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포기하게 되었고, 지금은 야구와 관련 없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야구에 대한 미련은 아직도 제 마음을 쓰리게 하네요.



더욱 신나게 놀기!

이정훈 님

제가 어릴 때는 공부만이 답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고요. 저도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것저것 해보면서 나의 꿈을 키워가고 싶고 더 신나게 놀고 싶어요.

한 그루의 나무 심기

성미진 님

친구들과 텃밭을 가꾸거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싶어요. 나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한 사람이 한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 환경과 지구가 더욱 건강하고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연 환경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이벤트는 <아이좋아> 소식지 4월호 예고편 영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댓글 이벤트입니다. 매달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5월호 이벤트는 4월 말 경남교육청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에 공개되는 예고편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4월호 예고편
영상 보기

2023년 5월호

독자퀴즈

아이좋아 경남교육 5월호를 집중해서 읽은 독자들만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1 _____ 진해에 살고 있는 초중학생 네 명으로 구성된 키즈 비보잉 크루의 이름이자 스페인으로 '가자, 갑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은 무엇일까요?(객관식)

① 바이킹 ② 바모스 ③ 바스켓 ④ 브레이킹

2 _____ 초등학생의 공적 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거점통합돌봄센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객관식)

① 다봄 ② 돌봄 ③ 늘봄 ④ 바라봄

3 _____ 1923년 5월 1일, 방정환 선생님이 결성한 소년운동협회가 어린이 해방을 요구하며 발표한 선언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관식)

4 _____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3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초등과정 또는 중학과정 학력인정서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관식)

4월 독자퀴즈 정답과 당첨자

• 정답
• 당첨자

1. ③ 알파인스키 / 2. ③ 4월 22일 / 3. 열두 달 환경교실 / 4. AI학습지원센터
통영진남초 강지음 / 김해대청초 백예본 / 창원웅남초 허지원

독자퀴즈 정답 보내실 곳

매월 제시되는 독자퀴즈의 정답과 이름, 연락처, 주소, 소속(교직원 및 학생인 경우)을 기재해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제출 기한 2023년 5월 20일까지
•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전자우편(gne8@hanmail.net)
• 문의 055-278-1784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읽고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 또는 소개하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자유 형식)를 아래로 보내주세요.

• 제출 기한 2023년 5월 20일까지
•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 전자우편 gne8@hanmail.net
• 전화번호 055-278-1784



경남교육 SNS

경남교육 정책과
주요 행사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아이좋아
경남교육 웹진

“우리의 생각이 교육예산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공고



신청서 다운받기

집중공모기간 2023.4.17.(월)~5.31.(수)

- **공모자격** 경남도민 누구나
- **공모방법**
 - 누리집** 참여마당 ▶ 주민참여예산제 ▶ 사업공모
 - 우편·방문**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학교회계담당

